

사회

市교육청, 사립유치원 파행 방치

광주 33곳 3년간 인건비 아끼려 원장없이 위법 운영

광주의 사립유치원 33곳이 무려 3년 동안 원장 공석인 채로 운영돼 왔음에도 교육청이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등 위법을 사실상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 시내 사립유치원 133곳 중 원장이 공석인 유치원이 33곳에 달한다. 유치원 10곳 중 2곳꼴로 원장이 공석인 셈이다.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의 원무 총괄, 소속 교직원 지도·감독 등 일반 학교의 교장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의 경우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위하며, 공·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관청인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원장 공석으로 유아 교육 부실이 우려됨에도 행정조정 등을 취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지도·감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점검에 나선 교육청이 최근 적발한 33개 유치원 대부분이 3년 이상 원장 공석이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원장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가 해당 유치원에 있음에도 원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치원들은 유치원 설립승인의 필수조건인 원장취임 승

낙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해당원장을 해촉하거나, 원장이 그만둘 경우 공석으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유치원은 설립 후 원장이 3년 이상 공석일 경우 시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유치원 설립자 등에게 원장 자격연수기회를 줘왔던 점을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즉, 원장 장기공석에 대한 구제조치를 이용해 유치원 설립자 등이 자연스럽게 자격을 얻어 원장으로 취임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일부 유치원은 급료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원장제명을 기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업계는 이같은 사정에도 올해에만 무려 33곳의 유치원에 대한 무더기 설립계획(가인가)승인이 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원장 장기공석인 유치원이 또다시 양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승인된 유치원 설립계획안에 따르면 2012년 17곳, 2013년 이후 16곳의 유치원이 건립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장 장기공석인 해당 유치원들에 대해 오는 12월8일까지 원장을 임용하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라며 “향후 유치원 원장이 공석이 될 경우 곧바로 후임 원장을 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연구비 횡령 의혹 목포대 교수 수사

목포대 교수들이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대학이 지난 2009~2010년 진행한 3개 연구사업의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A학생은 학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신규 통장과 함께 입출금 신용카드를 만들어 줬다. 이 통장에는 매달 17일을 전후로 20만~50만원의 돈이 1년간 들어와 500여만원이 입금됐다. 이 학생은 교수 연구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등록만 됐지 참여하지는 않았다.

또 다른 B학생도 영동한 사업의 인건비가 통장에 입금됐다가 인출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같은 학생이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철거되는 그랜드관광호텔

8일 광주시 동구 불로동 그랜드관광호텔 건물 옥상에 중장비가 동원돼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86년 문을 열었던 이 호텔은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된 이후 도심 상권이 무너지면서 2009년 8월 최종부도처리, 복합쇼핑센터로의 전환을 위해 철거되고 있다.

8일 광주시 동구 불로동 그랜드관광호텔 건물 옥상에 중장비가 동원돼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86년 문을 열었던 이 호텔은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된 이후 도심 상권이 무너지면서 2009년 8월 최종부도처리, 복합쇼핑센터로의 전환을 위해 철거되고 있다.

/김진기기자 jeans@kwangju.co.kr

삼성전자·LG전자·캐리어 대상

광주시교육청, 손해배상 낸다

에어컨·TV 사업 담합

광주시교육청은 담합한 가격으로 전자제품을 납품해 예산에 손실을 끼친 삼성전자와 LG전자, 캐리어 가전 3사를 대상으로 이달 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광주지역 학교 등에 냉·난방 겸용 시스템 에어컨과 LCD-TV 등을 납품한 업체로 지난해 공동 거래위원회로부터 조달 단가 인상 등 담합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은 삼성전자 175억원, 캐리어 16억5000여만원 등이며 LG전자

는 자진신고에 따라 면제받았다. 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들 업체가 담합했던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납품받은 시스템 에어컨과 TV 등의 구입 대수를 파악, 부당하게 지급한 차액을 되돌려받을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지난 2009년 650억원을 들여 217개교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기간에 구입, 설치한 에어컨과 TV 등의 정확한 대수, 부당지급 금액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만큼 우선 청구금액은 1억원 남짓으로 하고 추후 청구금액을 추가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전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평택지청, 관급공사비리 의혹 수사

검찰이 내년 총선 입지자로 거론되는 광주지역 전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파장이 일고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8일 “2010년 평택시 관급공사비리를 수사하던 중 의혹이 제기돼 확인차원에서 회계서류 등을 압수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사무실로 수사관 4~5명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오후에는 2010년 6·2지방선거 광주시장경선 당시 회계처리를 맡았던 관계자를 불러

조사중이다. 최근 경선 당시 전 국회의원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일했던 박모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는 광주시장 경선 자금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지청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는 없으며 관급비리공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수산한 부분이 있었다”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만큼 충분한 혐의점이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의경 치고 달아난 만취 운전자 검거

광주동부경찰은 8일 음주단속 중인 의경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전모(39·무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7일 오후 11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 스펙트라 차량을 몰고 가다가 음주단속을 하러던 윤모(21) 상경의 팔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현장 단속 중이던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이다가 접촉사고를 내 순

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이 경상을 입기도 했다. 전씨는 단속현장에서 3km가량 떨어진 북구 용봉동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순찰차에 가로막혀 검거됐다.

조사결과 전씨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결과 0.11%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원침 (8434) 김장두



영화배우 김추련씨

원룸서 목매 자살

영화배우 김추련(64)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김씨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8일 오전 11시45분께 경남 김해시 내동 모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상태로 같은 교화에 다니는 집사 강모(50)씨에 의해 발견됐다.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김씨는 1974년 영화 ‘뽀뽀 산다’로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그는 ‘비녀’, ‘빛속의 연인들’, ‘난장이가 소아울린 작은 공’ 등 50여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연휴뉴스

PC방 위장취업 현금 훔쳐 줄행랑

○PC방에 위장취업했다가 반나절만에 절도범으로 돌변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 경찰서생.

○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최모(20)씨는 지난달 8일 오전 8시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김모(여·38)씨의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다가 간이 금고에 있던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나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범행 전날 인터넷 구인공고를 보고 찾아와 일을 시작한 뒤 업무 김씨가 퇴근하자 반나절만에 범행.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잡음없이 잘 들린다 음성증폭기 블루투스형출시!!

속 시원하게 잘 들립니다~ 너무 편리한 소리큐 S20 고성능 음성증폭기



음성이 잘 안들리실 때!
두손으로 작업을 하시면서 주변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으신 분!
TV를 시청할 때 소리를 크게 듣고 싶으신 분!
핸드폰 통화할 때! 상담할 때!
강의를 하면서 대중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으신 분!
건전지가 필요 없는 충전식! (고속충전·정시간 사용)

귀에 꽂은 상태로 작은소리를 크게 듣고싶은 분들에게 소리큐 S20 음성 증폭기는 좋은 친구가 될것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특별우대 ★ 어르신께 최고의 선물 ★

인체공학적 초소형 초경량 블루투스형 설계로 성능을 올리고 가격은 내리고! 간편한 휴대, 간편한 사용!
무게 9g 길이 5.5cm의 초경량 초소형 인체공학적 블루투스형 설계로 착용시 무게감이 없어 편안하며 TV시청, 운동, 업무처리등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외부에 노출시 거리낄 염려가 없고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아주 쉽게 누구나 사용 할수 있게 설계된 첨단 고성능 음성증폭기로 성능 올리고 가격은 내렸습니다. 국내기술로 개발 생산하여 뛰어난 품질과 사후관리를 1년간 무료교환 보장합니다.



▶이어주 사용 ▶편리한 사용방법 ▶목걸이로 반실 걱정없이 휴대가능 ▶양쪽 귀로 청취가능

다양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 일상대화 | 텔레비전 시청 | 공연관람 | 강연회 | 조류관찰 | 자연관찰 | 야간감시 등등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820-6번지
송정한방병원 건물 4층 원일엠에스 문의 : 062)942-9822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포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